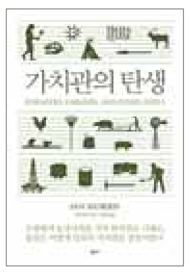
‘야수 같은 물질의 힘’은 어떻게 인류 가치관을 결정짓는가



가치관의 탄생

이언 모리스 지음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사람들에게는 가치관이 형성된다.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이 얼마나 중요한 지 교육을 통해 배우게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해 경중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생각한다. 신성시 여기는 것과 금기시 여기는 것 등 개인과 사회가 인식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공유한다.

그렇다면 가치관은 무엇이며, 이것은 과연 절대 불멸의 것인가? 스탠퍼드대학 역사학과 교수이자 인류문명사의 대가인 이언 모리스가 펴낸 ‘가치관의 탄생’은 인류의 문화와 가치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

특히 저자는 ‘야수 같은 물질의 힘’이 어떻게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고 가치관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고찰한다. 인간 가치관의 거시적 역사를 제시하기 위해 인류의 발전 과정을 에너지 획득 방식에 따라 수렵채집, 농경, 화석연료의 연속적 3단계로 나눈다.

모리스는 지금으로부터 10만 년 전쯤 인간 가치라고 할 만한 것들이 처음 출현했다고 본다. ‘공평, 공정, 사랑과 증오, 위해방지, 신성한 것에 대한 합의’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 핵심 관심사는 다양한 형태로 반복됐다는 것이다.

이들 기본 가치는 “인간이 생물학적 진화에 따라 크고 빠른 뇌를 확보하면서” 부상했다. 달리 말하면 인간의 지력이 문화의 발명과 재발명을 가능하게 했다.

복잡한 가치, 규범, 문화체계를 개발하고 이러한 것들은 다양한 협력 체제를 견인했으며 이 협력 체제는 환경 변화에 맞서 생존 가능성을 높였다. 즉 각 시대는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가치관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특정한 사회는 어떻게 나머지를 압도하는가? 모리스는 기술 혁신과 지리적 여건을 중요한 결정 요소로 간주한다. 그러나 도덕적 평가의 언어를 제도적, 사회적 성공이라는 기능적 잣대에 연결하는 것은 위험하다.

정치 체제와 경제 체제의 혁신이 해당 사회의 물질적 풍요와 세력을 키우고, 나아가 다른 사회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할 수 있지만 도덕의 후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니·2만2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세계 최고 지성 148명이 말한 ‘미래를 여는 열쇠’

이것이 모든 것을 설명할 것이다

존 브룩만 지음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웹사이트’로 알려진 ‘엣지’는 해마다 올해의 질문을 선정해 최고의 지성들에게 묻는다. 많은 이들에게 회자된 2012년 질문은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심오하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설명은 무엇인가”였다. 이에 대해 오늘의 세계를 설명하는 거의 모든 이론들이라 할 만한 대답들이 발표됐다.

세계 최고의 지성 148명의 대답을 묶은 ‘이것이 모든 것을 설명할 것이다’는 엣지재단 회장이 엮은 ‘미래를 여는 열쇠’와도 같은 책이다.

책에는 인간, 사회, 우주를 설명하는 과학적 이론과 철학적 사고들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하다고 여겨지는 이론들과 개념들이 담겨 있다.

리처드 도킨스는 ‘다윈의 선택설’을 예로 들며 “인간이 쌓아온 지식 중에서 이렇게 적은 가정으로 그토록 많은 사실을 설명한 이론은 없었다”고 설명한다.

‘경험주의’ 원리를 언급한 마이클 셔머는 민주주의의 선거제도를 사회 시스템을 점검하는 일련의 실험으로 비유한다. 그는 경험주의가 과학혁명 이후 과학과 사회 영역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광범위한 원리임을 역설한다.

책은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해 무엇을 더 이해해야 하는지 경고하며 더 깊은 성찰과 모색을 촉구한다.

다시 말해 우리 발 앞에 놓인 환경, 경제, 교육, 인공지능, 정치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인류가 협력해야 하며, 선한 공동체의 조건은 무엇인지 등을 고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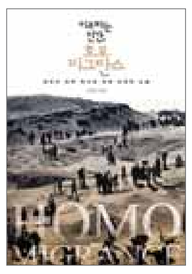
〈책읽는 수요일·1만65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이주는 인류의 삶과 문화 그 자체다

이주하는 인간 호모 미그란스

조일준 지음



지난해 10월 크로아티아에서 넘어 온 난민들이 슬로베니아 리곤체 들판을 가로질러 가고 있는 모습. 난민과 이주문제는 21세기 국제사회의 핫 이슈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다. 〈연합뉴스〉

지난 2015년 9월 2일 아침, 지중해 바닷물에 점차 찬 기운이 감돌던 무렵이었다. 터키의 휴양지 보드룸 해변에 세 살배기 어린이가 파도에 떠밀려왔다. 싸늘하게 식은 시신으로.

인형처럼 작은 남자아이는 해변 모래에 얼굴을 묻은 채 발견됐다. 아일란 쿠르디라는 이름의 아이는 난민 가족의 아들이었다. 터키 해안을 떠나 유럽으로 가려고 고무보트에 탔던 가족의 일원이었다. 안타깝게도 아이의 형인 갈리프와 어머니 레한도 보트가 뒤집히면서 다른 난민들과 함께 바다에 수장됐다.

강제든 반강제든 인류에게 이주는 삶 그 자체다. 아니 문화다. 이주에는 인류의 조상들이 떠났던 길에서부터 오늘날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는 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 길에는 다양한 감정과 상황이 교차하기 마련이다.

‘이주’를 역사적 관점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풀어낸 책이 출간됐다. 조일준 한겨레 국제부 기자가 펴낸 ‘이주하는 인간, 호모 미그란스’는 ‘이주’를 키워드로 인간 삶의 궤적과 현장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본다. 저자는 ‘아랍의 봄’ 민주화 열기와 파리 동시다발테러 현장을 목격하면서 이주와 난민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책에는 이주와 관련된 통계수치,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이 담겨 있어 학술서로 손색이 없다.

저자는 우리 모두는 이주자의 후손이라고 본다. 범박하게 말하면 인류의 역사는 지구의 낯선 환경에 적응하면서 영토를 넓혀가는 과정이었다. 초기 인류는 아프리카 중부의 사바나 지대를 떠나 미지의 땅으로 옮겨갔다. 이들은 수만 년에 걸쳐 북유럽과 러시아, 중앙아시아, 남으로는 오스트레일리아 대륙까지 영역을 넓혔다.

유라시아 대륙을 정복한 인류는 약 2만3000년 전에는 알래스카와 북아메리카 대륙으로까지 진출한다.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로마, 이슬람, 몽골 등 여러 제국이 등장하면서 확산과 충돌을 반복했다. 국민국가 등장 이후에는 민족 또는 정체성을 기준으로 통제와 학살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이주가 발생했다.

오늘날 지구에서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은 거의 없다. 반세기 전 미국은 달나라에 인류를 보냈고, 2030년대에는 화성에 우주기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세계화 시대’라는 말은 국가 간 이동 여행의 빈도가 그만큼 높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자유로운 이주를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장벽을 높여가고 있다. 국민국가 단위의 법과 안보, 정보 비대칭, 빈부의 양극화가 ‘보이지 않는 손’들이다.

국제이주기구가 집계한 2015년 기준 전 세계의 이주자는 2억4400만 명이다. 세계 인구의 3.3%로 이 가운데 강제 이주민 수는 6000만 명을 넘어선다. 분쟁과 박해에 따른 난민이 급증한 결과다. 지구촌 인구 113명 중 한 명은 난민이거나 난민 신청자, 국내실향민이다. 국외 난민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등 3개국에서 세계 전체 난민의 절반 이상이 나왔다.

이주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까운 미래다.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을 중심으로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2015년 말 현재 718만여 명에 이르는 재외동포와 2300만 북한동포 중 상당수도 (통일이 되거나 분단 장벽이 낮아질 경우) 잠재적인 이주자 집단이다.

이주는 정착이라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어떤 집단이 낯선 환경에서 다른 집단과 맞닥뜨리는 사태’다.

저자는 “현대 세계의 이주 문제를 폭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책을 펴내게 됐다”며 “시공간을 넘나드는 이 여행에 필요한 것은 여권과 비자가 아니다.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열린 마음, 그리고 세상에 대한 약간의 호기심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푸른역사·2만19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인간은 선·악의 변이와 선택으로 진화한다

다윈영의 악의 기원

박지리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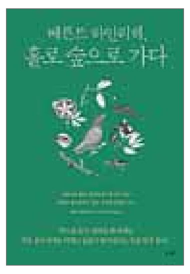
지금까지 탁월한 스토리텔링으로 ‘맨홀’, ‘양춘단 대학 탐방기’, ‘세븐틴 세븐틴’ 같은 작품을 발표해 호평을 받았던 박지리 작가가 ‘다윈영의 악의 기원’을 펴냈다. 25세에 ‘합체’라는 작품으로 사계절문학상을 수상할 만큼 독특한 이야기 스타일로 유명한 작가는 이번에도 독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소설의 제목이 암시하는 것처럼, 작품은 다른 나라, 다른 시간대를 배경으로 한다. 시간과 공간은 보통의 사상을 넘어선다. 이야기의 시공간은 국가의 핵심 권력을 가진 자들이 거주하는 안정적인 1지구부터 60년 전 일어난 12월의 폭동으로 국가로부터 버림받은 땅 9지구까지 구획된 사회다. 이 소설은 인간은 선과 악의 변이와 선택으로 진화한다는 것을 특유의 스타일로 전달하고 있다.

〈사계절출판사·1만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숲 속 생활에서 만난 모든 생명체들의 이야기



베른트 하인리히 홀로 숲으로 가다

베른트 하인리히 지음

땅 위의 이끼와 지의류부터 꽃과 나무, 곤충, 양서류, 날짐승, 야생동물까지 매순간이 신기하다. 호기심이 이끄는 대로 자유롭게 숲 속 자연과 조우하고 발 닿는 대로 걷고 뛰며 작은 것 하나에 주목하고 귀를 기울인다. 세계적 생물학자 베른트 하인리히의 하루하루는 그렇게 자연과 함께하며 바쁘게 흘러간다.

베른트 하인리히가 직접 쓰고 그린 ‘베른트 하인리히, 홀로 숲으로 가다’는 저자가 세밀한 관찰과 집요한 탐구정신을 바탕으로 숲 속 생활에서 만난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의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풀어낸 자연 생태 에세이다.

저자는 대자연의 서사를 섬세한 필치의 그림과 수려한 글로 꼼꼼하게 기록해 독자들에게 생명의 경이와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 숲 생활의 즐거움을 생동감 있게 전해주고자 한다. 〈더숲·1만6500원〉

/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